

2024. 11. 1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11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미래첨단교통과	이수진	2133-4950
미래첨단교통팀장	김해수	2133-4952
담당자	박민구	2133-4955

쪽수 : 5쪽

'판교~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

- 서울시, '40년 UAM 도심~광역 입체교통망 완성 목표로 '25년 여의도·한강 상공 실증
- 11.11.(월)~12.(화) UAM·드론·AI 컨퍼런스... 오세훈 시장 '서울형 UAM 비전' 발표
- 통행시간↓·운송시장 확대 등 천문학적 경제효과... 안정적 운항 위한 민·관·학 협력 지속
- 오 시장 "경험·기술력 집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 갖춘 '세계적 입체 교통도시' 도약"

- 내년부터 SF영화 속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오는 '30년, 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목표로 '25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11.11.(월)~12.(화)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11일(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UAM 노선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 대한민국 육군·고려대학교 공동 개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군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운항 체계를 확보하고 미래 첨단 교통 서비스 구축에 협력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 이번 비전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 시는 이번 비전을 통해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UAM’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강점

- ◆ 풍부한 도시 매력 : 한강 등 매력적인 관광 명소 보유, 한강·4대 지천 연결로 안전한 UAM 경로 확보
 - ◆ 세계적 의료 인프라 : 항공 포트 보유 다수 상급 병원 확보, 높은 접근성·의료진 등 고차원적 서비스
 - ◆ 헬기 운영 경험과 인프라 : 응급 헬기 이송 경험(200회 이상), UAM 이착륙장으로 활용 가능
 - ◆ 대중교통 연계성 : 촘촘한 대중교통망과 세계적인 환승 시스템, 첨단 대중교통 운영 경험보유
- ※ 지하철(11개 노선·337개역), 버스(378개 노선·6,608개 정류소)

- 시는 ▲UAM 운항 안전성 확보 ▲대중교통 연계 3차원 입체교통 체계구축 ▲비즈니스 모델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친환경·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선도 등을 목표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킨텍스(고양)~여의도 등 2개 구간 실증·'35년 이후 주요 도심 연계 간선체계 완성>

- 먼저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UAM 운항에 필수 시설인 정류장 ‘버티 포트’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인다. 시는 시범 및 초기단계 운영을 위해 ‘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4개소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 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버티허브(대형)·버티포트(거점)·버티스탑(소형), 규모별로 구분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운행 노선은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눠 구상됐다. 실증기간인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잠실~수서역,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 예정이며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이 검증된다.
- ‘정부 UAM 그랜드 챌린지’는 현재 1~2단계 진행 중으로 지자체, 민·관·학이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남부·동남부 지역을 운행 예상 노선으로 선정해 한강을 중심으로 노선을 계획 중이다.
- 특히 ‘초기 상용화 단계(’26~’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으로,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하여 비즈니스·이동 수요 뿐 아니라 관광, 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 ‘3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되고,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역 노선에는 상암·가산·광화문·왕십리·상봉 등 중간 거점 정류장이 추가돼 도심, 주거 지역 등 생활권이 연결되고 경기·인천 공항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UAM 네트워크 완성 단계에는 신도림·강남·수유·마포 등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해 UAM이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 한계 넘어선 ‘메가시티 시대’ 실현… 통행시간↓·운송시장 확대 등 천문학적 경제효과>

- 서울형 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km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고,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 뿐만 아니라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이 가능해져 수요 맞춤형 교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2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 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2조 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안전체계 등 편의·안전성 확보… 안정적 운항위한 민관학 협력 지속>

- 한편 시는 도심 항공 교통을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부터 결제, 경로 안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MaaS(Mobility as a Service)’도 도입한다.

- 통합 서비스를 통해 미래형 환승센터인 ‘버티포트’에서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탑승,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이륙~순항~착륙 단계에서 운항 정보와 항공 통신, 풍속, 레이다 등 주요 정보를 관제하고 비상착륙장을 비롯하여 비상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시는 ‘25년 실증을 개시, ‘40년 UAM 네트워크 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학 산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육군과 ‘서울형 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서울형 UAM 미래 비전’을 통해 도심 이동의 자유가 이제 구상이 아닌 ‘현실’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이 세계적인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와 육군이 협력, 양 기관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모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